

## 화해의 교회(Chapel of Reconciliation)

인상적인 신고딕양식의 벽돌 건물인 ‘화해의 교회’는 1894년에 베를린에 지어졌다. 1945년에 베를린이 점령 지역으로 분열되었을 때, 본당 역시 분리되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소비에트 영역에 위치해 있을 때 대부분의 교구민들은 근접해 있는 프랑스 영역에 살았다.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장벽은 교회 바로 앞을 통과했다. 즉 교회는 동(東) 베를린이나 서(西)베를린 어느 쪽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웠고, 결국 황폐해졌다.

게르만 민주 공화국(GDR)이 “서 베를린 국경 지역의 안전과 질서, 청결을 우선시한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교회는 1985년에 완전히 부숴졌다. 그러나 5년도 지나지 않아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여름에 경계 시설의 공식적 붕괴가 시작되었다. ‘화해의 교회’의 땅은 불모지가 되었고 풀과 작은 나무들로 무성해졌다. 가능한 한 빨리 분단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행해질 때, ‘화해의 교회’는 본당이 어떻게 하면 지역과 역사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지 심사숙고했다. 지역이 반환된 뒤 교구는 오래된 교회를 토대로 해서 예배당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남은 흔적을 보존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신식 건물이었다. 재건축이 아니었으면 남은 흔적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게다가 건물은 자원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생태학적으로 시간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건축되어야 했다. 교구는 맞비긴 축으로 된 두 개짜리 동심(同心)의 타원형 건물 디자인을 선택했다. 나무 슬레이트로 된 바깥 타원은 이전의 ‘화해의 교회’와 일직선을 맞추었고, 다져 굳혀진 흙으로 된 안쪽 타원은 다른 관습을 따르는 동(東)-서(西)와 일렬을 이루었다.

다져 굳혀진 흙으로 된 본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찰흙 건축가 마틴 라우치(Martin Rauch)의 감독 하에 지어졌다. 동-서유럽 14개 나라에서 온 ‘오픈 하우스(Open Houses)’ 자원 봉사자들이 그를 도왔다. 진흙은 30 센티미터의 두꺼운 층으로 된 거푸집에 부어졌고, 약 8 센티미터 두께로 압축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11주년이었던 2000년 11월 9일에, ‘화해의 교회’는 개관식을 열었다. 교회는 독일에서 최근 150년 간 지어진 것 중 최초의 공공 압축 진흙 건물이었다고 동시에 무게를 지탱하는 압축 진흙으로 된 최초의 독일 교회였다.

본당 건물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곳은 그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그 곳은 유기적으로 생성되었고 고유의 생태가 있어 왔다. 그 곳은 건축, 생태학, 추상적인 문화와 유럽적인 소통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과 결합되었다. 외양은 이러한 혼합의 결과이다.

‘화해의 교회’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기에 ‘오픈 하우스’는 교회의 모습에 특히 신경을 썼다. 매년 ‘오픈 하우스’는 국제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이를테면, 시(市)의 교회 주위환경 개발에 대한 계획안 워크숍, 베를린 장벽 건물을 기억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 이전 ‘화해의 교회’ 전방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 프로젝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오픈 하우스’의 국제 자원 봉사자들은 교회에서 방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교구를 돕고 있다.